

논문 분석요약서

제출자 성명	조송현	학번	2020511038	제출일자	2020. 5. 23.
논문정보	논문명	Towards Automated Penetration Testing for Cloud Applications			
	저자명	Valentina Casola, Alessandra De Benedictis, Massimiliano Rak, Umberto Villano			
	학술논문지명	2018 IEEE 27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nabling Technologies: Infrastructure for Collaborative Enterprises (WETICE)			
	장표, 연번, 게재연도 등	IEEE ISSN: 1524-4547. 2018			
논문 분석 요약					
연구목적 (문제 제기, 연구 필요성 등)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 보안 취약점 테스트 방법 중 하나인 Penetration Testing(Pentesting)을 발생시키고 실행하는데 도입할 수 있는 자동화방식을 소개한다. 저자는 Pentesting 환경설정 및 개시를 자동화하여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coarse-grained 수준의 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프로세스를 소개한다.				
관련 연구 현황	Penetration Tests (Pentest) : 침투 시험 ■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발전은 관련 자원에 대한 제어 부재로 보안 문제를 대두시키고 있다. 침투시험(Penetration Testing)기술은 다른 적용 가능한 테스트 방법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력하고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 Penetration Testing은 그러나 1) 사람의 제어가 필요한 방식이어서 발생가능한 공격에 대한 이해(인지)가 동반되어야 하며 2) 테스트를 실행하는 데 사용될 해킹 도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3) 모든 상황에서 사용 가능한 방법은 아니라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접근방법 (문제해결 방안, 시험 절차 등)	1. Penetration Testing Methodology(침투시험 방법론) ■ 이 논문에서 소개하는 pentest 방법론은 pentest 환경설정 및 개시를 자동화함으로써 노출된 취약점에 대한 coarse-grained 수준의 평가 및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에 존재하는 위험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 ■ 이 논문에서의 Pentest 방법론은 3가지 주요 단계를 제시한다: Preparation(준비); Scanning(스캐닝); Pentesting(펜테스트) ■ 각 단계는 모두 Model-based Activities (모델 기반 행동)과 System-based Activities(시스템 기반 행동)을 가진다. 모델기반은 카탈로그(Catalogue)에 기초하며, 모델링을 필요로 한다. 2. Preparation Phase (준비 단계) ■ Model-based Preparation phase: SuT risk analysis(모델기반 준비 단계: SuT 위험 분석):준비단계에서의 리스크 분석은 Multi-cloud Application				

	<p>Composition Model (MACM) 형식주의에 기반한 시험용 체계(SuT) 모델에서부터 시작된다. 각 구성요소 및 구성요소 간 주요 위협을 파악, 분류하고 위험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화된 프로세스를 제공한다.</p> <p>■ System-based Preparation phase: Testbed configuration (시스템 기반 준비 단계: 테스트베드 환경설정): 펜테스트 자동화 환경은 SuT 모델로부터 추출된 정보에 기초한 ‘사전 환경설정’을 이용함으로써 가능해진다. 테스트환경은 사전에 환경 설정된 네트워크(VPN)-3개 가상머신(공격 머신, 스캐닝 머신, 단말기 에뮬레이터 머신)을 연결한다-로 구성된 가상환경으로 조성된다.</p> <p>3. Scanning Phase (스캐닝 단계)</p> <p>■ 스캐닝 단계는 SuT에 영향을 미치는 약점 및 취약점을 확인한다. 이 논문의 접근에 따르면, 약점이란 모델기반 스캐닝에 의해, 카탈로그에 접근하는 방법으로 확인이 된다. 그러나 취약점은 스캐닝 도구를 이용, 취약점 스캐닝 과정을 수행하며 확인할 수 있으며 시스템기반 스캐닝의 결과물이라 볼 수 있다.</p> <p>■ Model-based Scanning Phase: Weakness identification (모델기반 스캐닝 단계: 약점 확인): 모델기반 스캐닝은 단순 명료하다. 카탈로그를 이용, 약점을 구성요소에 대응하여 확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SuT에 포함된 구성요소 타입에 따른 쿼리들을 이용, 약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p> <p>■ System-Based Scanning phase: Vulnerability Scanning(시스템기반 스캐닝 단계: 취약점 스캐닝): 취약점은 관련 technological stack 및 시스템 상 특정 소프트웨어와 관계가 있다. 알려진 취약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OpenVAS 도구를 사용한다.</p> <p>4. Pentesting Phase (펜테스팅 단계)</p> <p>■ 펜테스팅 단계는 적합한 공격을 구성(building) 및 실행(executing)하고 이전 단계에서 찾아낸 약점 및 취약점을 이용하는데 초점을 맞춘다.</p> <p>■ Model-based Pentesting Phase: Preparation of the attacks (모델기반 펜테스팅 단계: 공격 준비): 모델기반 행동에서는 카탈로그로부터 알 수 있는 이용(exploits)과 공격(attacks)을 적절하게 조합한 공격을 준비한다.</p> <p>■ System-Based Pentesting Phase: Execution of the attacks(시스템 기반 펜테스팅 단계: 공격 실행): 시스템 기반 행동은 사전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공격을 실행할 뿐이다. 각각의 공격 이후 시스템은 리셋되고 새로운 공격이 실행된다.</p>
결론	<p>■ 기존의 펜테스팅과 비교하여 본 논문에서 소개한 프로세스는 완전한 자동화를 이룰 수 있으며 넓은 약점 및 취약점에 광범위하게 대응할 수 있다.</p>
향후 연구사항 (추가적인 연구분야, 연구내용 등)	<p>■ 본 논문에서 소개한 방안에서는 ‘카탈로그’가 중요하므로 새로운 정보를 수집하는 것과 기존 정보간 연관성을 찾는 연구를 지속해야 할 것이다.</p> <p>■ 프로세스 중 공격을 실행하는 방법을 더욱 개선하여 본 연구의 효용성을 더욱 높일 수 있어야 하겠다.</p>